

3》졸업식 사진 명소



4~11》학부·대학원 졸업자 명단



12》여러분의 1학년은 어떠셨나요?



평화의 전당에서 새로운 출발을

사회의 첫 발을 떤 전기 학위수여식이 13일 열린다. 사진은 서울캠퍼스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다. 대학생으로서의 마지막 등교길을 축하한다. (사진=커뮤니케이션 센터)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오늘 13일 서울캠퍼스(서울캠) 평화의 전당과 국제캠퍼스(국제캠) 선승관에서 진행된다.

이번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서울캠 학부 2,093명, 국제캠 학부 1,755명 등 총 3,848명이 졸업한다. 각 단과대학별로는 간호대학 187명, 경영대학 366명, 무용학부 45명, 문과대학 163명, 미술대학 54명, 법과대학 21명, 생활과학대학 112명, 약학대학 91명, 음악대학 94명, 이과대학 238명, 자율전공학과 14명, 정경대학 380명, 한의과대학 99명, 호텔관광대학 229명, 공과대학 494명, 국제·경영대학 3명, 국제대학 98명, 동서의과학과 8명, 생명과학대학 129명, 예술디자인대학 260명, 외국어대학 202명, 응용과학대학 108명, 전자정보대학 245명, 체육대학 208명이 학사모를 쓴다.

일반대학원 박사 208명과 석사 535명,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2명과 석사 59명,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107명, 치의학전문대학원 석사 79

명, 특수대학원 박사 18명과 석사 506명도 학위를 받는다.

우수 졸업자에게 수여되는 총장상의 영예는 서울캠 김동섭(물리학 2011) 씨 외 13명, 국제캠 강남은(전자공학 2014) 씨 외 9명으로 총 22명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 대학장상 서울캠 9명, 국제캠 9명이 수상했으며, 우등상은 서울캠 36명과 국제캠 42명이 수상했다.

서울캠 총장상 대표 수상자인 김동섭(물리학 2011) 씨는 “저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부모님과 저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친구들에게 감사사를 표한다”며 “대학생활의 마무리가 좋은 만큼 이 기세를 몰아 대학 밖으로 나가서도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국제캠 총장상 수상자 중 한 명인 강남은(전자공학 2014) 씨는 “4년 동안 휴학도 하지 않고 매 학기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마지막에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진짜 졸업의 순간이 다가 온 것 같아 아쉽지만 좋게 떠날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서울캠퍼스 졸업가운 대어 일정

단과대학명	대어 일정	대어 장소
간호과학대학	2.13(화) 10:30~16:00	SPACE 21 간호과학대학 121호
경영대학	2.13(화) 10:00~16:00	경영대학관 306호
무용학부	2.12(월)~2.13(화) 09:00~17:00	무용학부관 201호
문과대학	2.12(월)~2.13(화) 09:00~17:00	문과대학 각 학과(부) 사무실
미술대학	2.8(목)~2.12(월) 09:00~17:00	미술대학 행정실 203호
법과대학	2.5(월)~2.13(화) 09:00~15:00	법과대학 214호
생활과학대학	2.12(월)~2.13(화) 09:00~17:00	생활과학대학 행정실 208호
약학대학	2.13(화) 09:00~17:00	약학관 101호
음악대학	2.12(월)~2.13(화) 10:00~16:30	음악대학 행정실 207호
이과대학	과 별 상이(학과 사무실 문의)	이과대학 각 학과 사무실
자율전공학과	2.13(화) 09:00~17:00	자율전공학과 행정실
정경대학	2.7(수)~2.13(화) 09:30~17:00	정경대학 305호
한의과대학	2.9(금)~2.13(화) 09:00~17:00	SPACE 21 한의과대학 157호
호텔관광대학	2.12(월)~2.13(화) 09:00~17:00	호텔관광대학 컨벤션(2층)

국제캠퍼스 졸업가운 대어 일정

단과대학명	대어 일정(2월)	대어 장소
공과대학	13(화) 09:30~17:00	기계공학: 공대 142-1호 산업경영공학, 원자력공학, 환경학및환경공학: 공대 142-2호 사회기반시스템공학, 건축공학, 건축학: 공대 146호 화학공학, 정보전자신소재공학: 공대 148호 총괄장소: 공대 102-1호
국제대학	13(화) 09:30~17:00	국제학관 305호
생명과학대학	13(화) 09:30~17:00	생명과학대학관 세미나실 119호
예술·디자인대학	13(화) 09:30~17:00	예술·디자인대학관 각 학과사무실
외국어대학	13(화) 09:30~17:00	외국어대학관 204호
응용과학대학	13(화) 09:30~17:00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관 226호, 227호
전자정보대학	13(화) 09:30~17:00	전자공학: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관 101호 컴퓨터공학: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관 102호 생체의공학: 전자정보대학/응용과학대학관 103호
체육대학	13(화) 09:30~17:00	체육대학관 212호
동서의과학과	13(화) 09:30~17:00	국제경영대학관 212호

수상자 명단

● **총장상**=강남은 강홍지 공드립 김동섭 김재관 김지환 박종현 박지선 박혜정 심솔 안호성 양세민 이진영 장대한 조가비 조수연 조영현 조예담 조형우 최정우 허지현 현윤지

● **학장상**=김건희 김은지 김재원

김지환 백은 신재연 안예진 이지영 이하연 정정이 정현영 정환용 조유진 최영은 최영훈 최인수 최정욱 최지웅 한건

● **우등상**=NAGAO CHINAMI 가승순 강주영 강한솔 고병휘 고은혜 권혁우 권혜린 김경찬 김민규

김상걸 김소이 김시찬 김지환 김희진 김건중 김경준 김은비 김익재 김준영 김준현 김진규 김태성 남수경 류혜리 박수빈 박야나 박주영 박민지 박병인 박정현 박태준 부성필 서종현 서지운 서해민 석지은 성민제 신예린 심지민 심하영 안창범 안태진 양지호 오승희 오유진

윤해인 이경현 이재은 이가희 이동현 이유리 이주영 이지원 임우섭 임수빈 장미화 장예지 정다울 정지운 정한창 조선영 조준형 지율리아 차소연 최요셉 최주영 최한묵 최희은 최수빈 최유림 최진영 하슬아 한태은 허혁준 홍현석 황효은 황영주 황준권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과 함께 그리는 경희의 미래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 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네스코의 이리나 보코바(사진·Irina Georgieva Bokova) 전 사무총장이 우리학교 명예평화학 박사가 된다. 이후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미원렉처’ 석좌교수 겸 후마니타스칼리지 명예대학장으로 임명돼 오는 새 학기부터 직책을 수행한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불가리아 출생으로 불가리아 외무장관과 부통령을 거쳐 유네스코 상주대표부 대사를 지냈다. 2009년 유네스코 역사상 첫 여성 사무총장을 맡은 이후 2013년 연임에 성공해 지난해 11월 임기를 마쳤다. 재임 시절 급격한 세계화에 따른 ‘획일성과 배제, 불균형’이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소도서개도국, 전후국가와 양성평등에 관련한 사업을 진행했다. 한편 문맹·빈곤퇴치를 가장 시급한 프로그램이라 명명하며 국제원조를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에도 기여했다. 기후변화에서부터 저개발국 교육 기회 확대, 인류 문화유산 보호에 이르기까지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인류’와 관련된 폭 넓은 이슈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2016년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그는 자신만의 철학과 비전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보코바 전 사무총장의 이러한 관심은 한국에 4개뿐인 유네스코 석좌교수 임명 당시 미원렉처에 초청돼 ‘유네스코에서 본 21세기 평화의 토대’ 강연을 시작으로 2015년, 2017년 PeaceBARFestival 축하 영상에 등장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보코바 전 사무총장은 “질 좋은 교육은

평화를 위한 길의 시작”이라며 “교육은 인권 존중 의식을 일깨우고 타 문화를 이해하여 다른 사람과 연대해서 나갈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젊은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길의 중심에 젊은이들의 비전과 열망이 있다”며 “젊은이들 개개인이 자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과학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조인원 총장은 “전례 없는 문명사적 대변혁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 인류를 위해 일했던 보코바 사무총장을 초빙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향한 보코바 사무총장의 열정과 기여는 우리 학교와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 소감을 밝혔다. 이영준 후마니타스칼리지 서울캠퍼스 학장은 “보코바 전 사무총장의 풍부한 활동 경험과 지혜는 국제기구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려는 교수들은 물론 세계로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우리학교는 지속적으로 창학 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와 ‘학문과 평화’라는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세계적 지도자들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해왔다. 지금까지 故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대통령을 비롯해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앞으로 학생들은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전달을 주제로 한 대형특강, 교수들은 지속가능개발계획, 유네스코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패컬티 세미나를 만나볼 수 있다.



(사진=커뮤니케이션 센터)

알림

졸업 후에도 학교 소식을 받아보세요!

대학주보 구독 신청 02-961-0093~4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 신청 khad3070@khu.ac.kr

미디어센터 mediakhu.ac.kr

인터넷 대학주보 media.khu.ac.kr/khunews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khunews

졸업축사

사설

책장 속 낙엽처럼
빛을 잃지 않는 오늘이 되길

졸업식 아침이면 학내 곳곳에 ‘사진 촬영’ 팻말과 커다란 카메라를 둘러싼 사진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졸업을 맞는 오늘의 주인공들이 하나둘 나타난다. 아마 다시 올 일 없을 학과 행정실에 들러 졸업장과 가운을 받아들고 모교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저마다 사진을 찍는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인생은 한 번 뿐이고 시간은 불가역적이니 우리는 사진으로나마 찰나의 순간을 간직하려고 한다. 곳곳에서 셀카봉이 솟아오른다. 장롱 속에서 잠자던 무거운 카메라가 오랜만에 제 실력을 뽐낸다. 아직은 출지만 렌즈를 향해 한껏 웃어본다. 오늘은 축하하고 축하받는 모습을 남기기에라도 짧은 하루이기에.

제65회 전기학위수여식을 맞은 졸업생이 어른의 첫 페이지를 써내려간 캠퍼스는, 이제 사진 속 배경으로 추억의 한 페이지에 자리 잡을 것이다. 동시에 이 추억의 한 페이지는 사회인이 되어 펼쳐는 첫 페이지이기도 하다. 이제까지 받아들었던 졸업장과 달리 경희대학교라는 이름은 앞으로 걸어갈 긴긴 여정의 많은 장면에 함께할 것이다. 그대들이 경희의 이름을 꺼낼 일이 있을 때 마다 사진 속에 들어찬 학교의 풍경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는 모르겠다. 만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성에 차지 않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 자리에 서 논할 주제는 아닌 듯하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면 이제 ‘학생’이 아닌 ‘동문’의 이름으로 경희와 그대들이 같이 걸어간다는 점이다. 경희는 여러분이 만드는 한 걸음 한 걸음으로 기억되며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은 경희의 이름을 대표한다. 작은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회인으로 걷다가 지칠 때 오늘의 사진을 꺼내보고 경희의 이름을 되돌아보며 잠깐이나마 쉴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처음으로 너른 세상에 나와 자신의 20대를 숙성시킨 캠퍼스라는 장소가 언제까지고 그대들의 책갈피였으면 한다. 책장 속에 끼워둔 낙엽이 빛을 잃지 않고 그 장소에서 다시 펼쳐 보일 날을 기다리듯 말이다.

사진과 낙엽 책갈피는 모두 욕심의 발현인지도 모르겠다. 스쳐 지나가면 바스라지는 한 순간을 소중히 보관해 언제고 꺼내보고자 하는 욕심 말이다. 학교에 남는 자로서는 경희에서 만든 추억과 배움이 여러분의 욕심을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면 기쁠 뿐이다. 캠퍼스 밖은 모진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임을 알기에, 더더욱 떠나보내는 마음이 애뜻하다.

그래서 추억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사진을 남기기 좋은 캠퍼스 안 사진 포인트를 골라봤다. 여러분이 청운의 꿈을 꾸었을 때 바꿨던 대학생활을 정리했다. 새내기 동문이 된 여러분을 위해 학교가 준비한 몇 가지 혜택을 정리했다. 무엇보다 오늘을 맞이한 4,591명의 이름을 아로새겼다. 경희대와 대학주보가 존재하는 한 그대들의 이름은 우리의 역사로 이어질 것이다.

중요한 말을 마지막에 하기 위해 아껴두고 있었다. 오늘 졸업을 맞이한 모든 이들에게 글로는 다할 수 없는 축하를 보낸다. 그대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캠퍼스에서 보냈던 20대의 날들처럼 빛나기를 축복한다. 그리하여 오늘 카메라를 바라보며 지었던 웃음을 매일매일 지을 수 있기를 응원한다.

졸업생들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축사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비상대책위원장 윤단비



삶이 흔들릴때 돌아와 쉴 수 있는 경희

오늘 경희대학교 2017학년도 학위수여식을 맞이해 졸업생 여러분께 축하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느 날과는 사뭇 다른 날입니다. 저 역시 경희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진학했기에 졸업식을 맞이한 날들을 떠올려봅니다. 과제와 논문으로 쉴 수 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고, 햇빛 좋은 날이면 모두 강의실을 나와 분수대 앞에서 본관놀이를 즐겼습니다. 캠퍼스 안을 마음껏 거닐며 학문과 삶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북적거리는 회기동은 골목골목마다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고 젊음의 열

기가 가득했습니다.

청춘이라는 불길 속에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전공분야의 불안한 미래와 싸우며 실패할까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때론 삶은 지독한 늪처럼 저희를 괴롭힐 때도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을 통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디로 나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고민, 실천을 통해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경희대학교는 이러한 열정과 배움의 한가운데에 서있던 기억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든 학교를 떠나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속에서, 우리 경희대학교의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경희에서의 배움은 삶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제 인생의 일부를 경희대학교에서 보낼 수 있던 것은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부디 오늘 졸업을 맞이한 여러분에게도 경희대학교에서의 경험이 값진 것이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평화의 전당을 넘어 그리운 바람이 우리를 이야기 할 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쉴 수 있는 이곳, 경희대학교 정사에서 저희는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축사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수현

걱정하는 사회 속 올바른 이정표가 될 것

안녕하세요.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제33대 총학생회장 김수현입니다. 총학생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한명의 원우로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축하를 드리게 되어 무척 영광스럽습니다. 우선 졸업을 맞이하시는 학우 여러분, 그리고 원우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을 담아 축하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문득 저의 졸업식이 떠오릅니다. 졸업식의 순간은 매우 짧았지만, 여러 해 동안 몸담았던 교정을 떠난다는 여운이 그 후로도 며칠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의 지난 대학생활은 어떠셨습

니까? 잠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즐거웠던 시간, 힘들었던 시간을 지나 목표한 바를 성취한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노력은 성과와 무관하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입장에서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기를 겪으며 느끼는 것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영

에도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우리는 감히 그 변화를 모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운 모든 지식들이 쓸모없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희대학교에서 배운 본질적 가치와 진리 탐구의 정신은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며, 여러분의 빛과 스승은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경희정신을 발판삼아 앞으로 닦칠 모든 일들을 현명하게 해결하고 나아가 미래세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의 빛나는 미래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졸업축사
국제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장 김효형

어려운 선택들이 모인 오늘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정든 학교를 떠나시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만 2천 경희대 재학생들을 대신하여 졸업생 여러분을 떠나보내는 축하를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별을 하는 이 자리가 자칫 슬픔과 아쉬움으로만 남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한풀 꺾인 추위가 분위기를 한결 밝게 해주는 것 같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국 대학의 졸업식에선 사회 유명인사가 졸업을 맞은 대학생을 위해 축하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은 이를 흔히 ‘마지막 수업’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 주옥같은 수많은 축사가 있지만, 저는 특히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가 2010년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에서 남긴 축사가 인상 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선택들, 그 중에서도 어려운 선택의 결과다.(We are our choices. Especially the hard ones.)”

사람들은 누구나 재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리함이나 예술적이거나 한 재능들은 어찌 보면 ‘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절할은 ‘선택’입니다. 재능에 비해서 ‘어려운’ 것이죠. 재학생에서 동문으로, 학생에서 사회인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시는

여러분도 수많은 어려운 ‘선택’을 거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여러분이 했던 ‘선택’들이 모여 의미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경희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자긍심을 가지고 재학생이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시는 여러분이 훗날 동문이 될 재학생들의 등불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졸업생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축복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대, 살아 숨 쉬는 한 경희의 이름으로 전진하라.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옥 | 편집장 박지영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30-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30-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역삼대로 1732(서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아니! 우리학교에 이런 곳이?” 캠퍼스 사진 명소



졸업식 사진 명소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안나연 기자 na@khu.ac.kr

#. 남는 건 사진이다. 졸업식도 예외는 아니다. 졸업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 바로 사진이다. 학교에서의 마지막을 간직하기 위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심 없이 셔터를 누른다.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가족과 친구 모두와 기쁨을 나누는 시간, 좋은 사람과 함께 이왕이면 좋은 배경에서 사진을 찍고 싶지 않은가! 후기 학위수여식과는 다르게 양상한 나뭇가지가 아쉬운 당신에게 서울·국제 캠퍼스의 사진 명소를 소개한다. 정든 캠퍼스를 떠나는 대신 당신의 인생 사진과 함께 이를 달래보기 바란다.



1 서울캠퍼스의 자랑인 본관이다. 한국인이 설계하고 지은 최초의 석조전이다. 본관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동시에 담아내는 위치는 바로 본관 계단 사자 뒤의 난간이다. 이곳에 살포시 앉고 카메라 렌즈를 살짝만 들여보자. 하늘로 높게 뻗어있는 본관의 모습이 여러분과 어우러질 것이다. 한 가지 팁은 촬영자는 사자 옆 잔디에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안전에 유의하자. 바닥이 돌로 되어있기 때문에 넘어진다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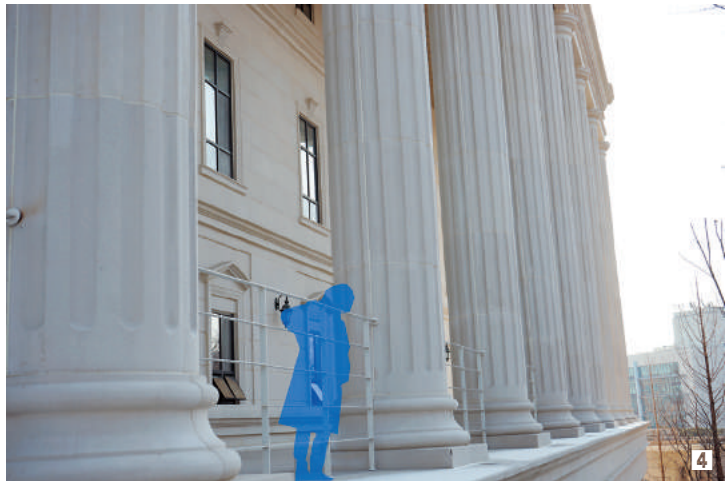
6 예뻐수록 꼭꼭 숨겨놓는다.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 가장 깊은 곳인 평화노천극장(노천극장)에 가보자. 노천극장에서 핵심은 기둥이다. 친구들과 함께 각자 기둥에 앉아보자. 기둥이 곡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다른 기술 없이도 모두가 사진에 담길 수 있다. 같이 간 친구들 모두 카메라에 담고 싶다면 맨 앞 사람 기둥에 카메라를 놓으면 된다!



2 우리학교 행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공연의 중심지가 된 평화의 전당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 유명하다. 하지만 유명할수록 깊이 들어가야 한다. 오른쪽으로 돌아가보자. 화성교와 동상이 여러분을 맞이한다. 그 동상 아래에서 멋진 포즈와 함께 셔터를 누르면 평화의 전당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그럴듯한 사진을 얻을 수 있다.



7 친구들과 같이 나오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혼자만의 단독샷을 즐기는 사람도 있다. 장소는 동일하게 노천극장의 기둥! 무대 뒤 기둥 중 뒤쪽에 있는 기둥에 앉고 시선처리는 멀리! 사진을 확인하면 여기가 경희대인지 그리스 신전인지 착각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3 시험 기간, 지겹게도 들어갔던 중앙 도서관이지만 그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 본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도서관에서의 공부는 잊고 도서관 오른쪽에 위치한 민주 공원에 올라가 보자. 앙상하게만 보였던 나뭇가지들이 중앙도서관 건물과 조화를 이뤄 여러분들의 사진에 아름다움을 한껏 더해줄 것이다.



8 중앙도서관은 정문 못지않게 웅장하다. 중앙도서관을 한 컷에 담기 위한 명소는 선승관에서 학생회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다. 계단의 초입 연꽃이 그려진 돌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으면 중앙도서관을 한 컷에 담을 수 있다. 카메라를 바라봐도 좋고, 중앙도서관을 바라봐도 좋다. 어떤 자세라도 멋진 사진이 나올 것이다.



4 이제 곧 학생들에게 개방될 신설단과대학동이다. 정면에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새하얀 기둥이 정렬해 있다. 하지만 조금 더 멋진 사진을 위해 오른쪽으로 가보자. 이곳의 기둥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자. 촬영자는 건물 아래에서 셔터를 눌러준다면 이곳이 경희대인지 유럽인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9 국제캠의 자랑인 네오르네상스 문, 정문이다. 학교 가는 길 무심코 지나쳤던 정문의 내부를 한번 보자. 그 안에는 웅장한 기둥들과 함께 ‘새천년 지구 공동사회 선언문’이 걸려있다. 새천년을 맞이한 지 18년째가 됐지만 이 문구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지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고로 점프와 같은 역동적인 모습을 담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10 국제캠의 사자는 체육대학에 위치해 있다. 사자 옆에 올라가 자세를 잡아보자. 이를테면 사자의 머리 밑에 편안히 앉아 있는 자세나 사자 얼굴에 본인의 얼굴을 맞대고 교감하는 모습 말이다. 사자에 쉽게 올라가는 팀은 체육대학 정문 계단을 올라가 난간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사자가 생각보다 높이 있고 바닥은 딱딱한 돌이니 안전에 유의하길 바란다.

졸업특집

